Venture in, 벤처人

Funny Venture ◎◎ 메리고라운드 맹선호 대리의 미니홈피

그곳은, 생생한 해외페스티벌의 현장!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신다거나, 친구와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도 쉽지 않은 요즘이다.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다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은 가을, 소소한 일상의 여유가 더욱 절실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이처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굴뚝같아도, 시간의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소통 통로가 바로 미니홈피일 것이다.

공연기획사 '좋은콘서트'에서 홍보 및 마케팅, 인터넷사업이 분리되어 세워진, '메리고라운드' 맹선호 대리의 미니홈피(www.cyworld.com/maengsaver)는 음악과 공연의 소통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일과 너무도 닮아 있는 그녀의 미니홈피를 들여다 본다.

'좋은콘서트' 홈페이지의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맹대리의 주 업무는, 음악과 콘서트 관련 웹진 'GOODZINE'을 매달 발행하고, 공연정보를 올리거나 다양한 이벤트를 만드는 것. 그래서인지 그녀의 미니홈피는, 마치 웹진에 올라오는 공연 이야기의 숨겨진 창고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공연정보와 사진들로 가득 찬 그녀의 미니홈피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은,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잘 정리되어 있는 해외음악페스티벌 사진들. 2004년 도쿄 썸머소닉페스티벌을 비롯하여 2005년 글라스톤베리와 후지락페스티벌 사진들이 각각의 폴더에 올려져 있는데, 여기에 전문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산 증언을 담은 맛깔스러운 멘트가 더해져 읽는 재미도 함께 선사한다.

"해외 뮤직 페스티벌은 완전한 관객의 입장으로 100%의 자유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TV나 사진으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세계 최고 뮤지션들의 라이브를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죠. 그 완전한 자유의 순간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사진 속의 해외공연을 회상하는 맹대리를 보면서, 그녀가 자신의 직업 때문이 아니라 음악과 공연을 사랑하는 한 명의 순수한 관객 입장에서 즐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80여 명에 달하는 일촌 중에는 일적으로 만났다가 음악이란 연결고리로 이어진 사람도 많다. 그녀가 주로 정보를 얻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은 음악과 페스티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싸이월드의 UKfest (ukfest.cyworld.com). 이곳에서 영국의 페스티벌 자료와 정보를 얻는 그녀는 회원들과 함께 올해 영국의 글라스톤베리 페스티벌에 참가하기도 했다.

가끔씩 일하기 싫을 때나 우울할 때, 여행사진을 모아놓은 Walk Abroad 폴더나 페스티벌 폴더를 보면서 기분 전환을 한다는 맹선호 대리.

그저 다른 사람들이 미니홈피를 방문했을 때 재미있게 보고 가는 걸로 만족한다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서 비로소 '지극히 개인적인'의 의미를 깨닫는다.

벤처인들과 더불어 나누고픈 인터넷사이트를 운영 중이시거나, 통통 튀는 벤처인다운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담당자 : 김지원(ezmail@empal.com, 02-515-3681)